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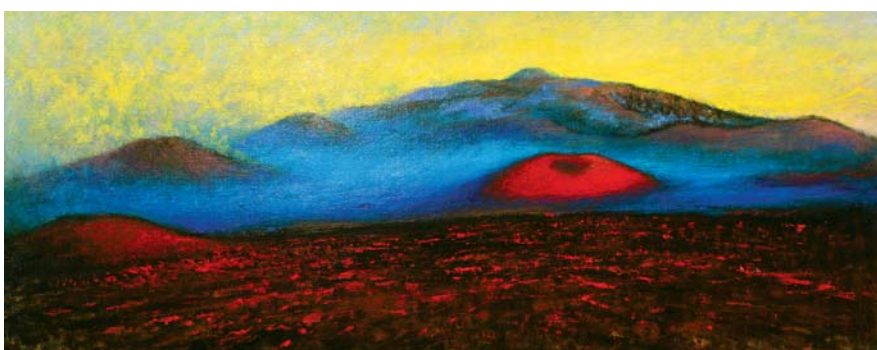
섬이 품은 원초적 아름다움 파도 속에 사라지는 원 풍경



김산의 '본향(本鄉)'.

도문화진흥원 청년작가
김산·백성원 2인 초대전
급변하는 제주 삶과 자연
다른 색채와 형상 회화로

제주청년작가전 25년을 결산하는 자리가 마무리되면 우수 청년작가 초대전이 뒤를 잇는다. 지난해 제주도문화진흥원 제주청년작가 공모전에서 우수작가로 선정된 김산·백성원 개인전이다. 이달 20일부터 6일동안 문예회관 1전시실과 2전시실에서 나란히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두 작가는 '제주섬'을 불렀다. 섬이 품은 원초적인 아름다움, 파도처럼 씻겨져 사라지는 원 풍경에 대한 안타까움이 배어난다.



백성원의 '화산도-노꼬메'.

김산은 '탐라풍(風)'이란 이름으로 신작을 포함 회화 40여 점을 내건다. '탐라풍'은 탐라의 화풍이란 의미로 이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의 가락을 담고 싶어 붙인 이름이다. 내륙의 부족함이 되어가며 제주의 진정한 얼굴이 지워지는 현실에서 근원적인 섬의 모습을 찾으려는 작가의 고민이 드러난다.

"짧은 날, 탐라섬의 험벗어가는 자연이 마치 햇살에 그을린 내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작가로 살아가는 내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작가의 말에 이번 전시의 함의가 있다.

백성원은 '화산도'란 제목으로 제주를 일컫는 또다른 이름이자 태초의 어머니인 한라산을 화폭에 풀어놓는다. 계절에 따른 빛과 온도, 바람, 습기 등의 변수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한라산을 그린 회화 20여 점을 선보인다.

"유형에 뒤쳐진 아재개처럼 고지식하리만치 전통의 아날로그 감성, 붓을 고집하고 있다"는 백 작가. 그는 "나의 풍경은 '이상'이라하며 '존재의 본질적 이데아를 추구한다'고 적었다. 개막 행사는 첫날 오후 2시. 문의 064)710-7633. 전선화기자

영상문화 육성 응모 서류부터 자격 논란

흔디영화제 국고 확정 알려
영화제 상영·시상·여비 등
별도로 구분해 예산서 제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2019년 영상문화 육성지원 공모사업(분보 7월 8일자 8면) 서류 검토 단계부터 공모 기준을 이겼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제주독립영화제작협회 안에 제주흔디독립영화제 등 이른바 '4개 색션' 예산이 각각 작성되었지

만 이를 1개 프로젝트로 간주해 서류를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해당 단체가 진흥원에 제출한 예산서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국고보조금(1500만원) 지원이 확정되었다고 적었다. 이 단체가 총 8100만원으로 명시한 사업비 중에서 진흥원에 신청한 보조금은 6000만원이었고 심사 결과 5500만원 지원이 결정됐다. 이들은 제출예산서에서 상영료를 6월 기획상영, 7월 기획상영, 9월 흔디2019, 11월 기획상영으로 구분해

책정했고 시상비, 여비, 인건비, 기타 집행비도 따로 제시했다. 2회 흔디독립영화제로 국비를 받은 영화진흥위원회에도 임차료, 상영료, 인건비, 광고홍보비, 시상비, 여비 항목을 구분해 서류를 냈다. 같은 항목에 국비와 지방비 중복 투입 가능성이 높은 데도 심사 단계에서 이를 거르지 않았다. 제출예산서를 보면 흔디독립영화제 사업비가 별도로 명시돼 '1개의 법인(단체)당 1개 프로젝트만 신청

가능'한 공모 기준에 위배된다는 해석이 영화 관련 단체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진흥원 관계자는 여전히 "산출 근거는 구분되었지만 항목별 전체 금액이 제시되어 있어 1개 프로젝트"라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예산서에 해당 사업이 '제주독립영화제작협회'가 아닌 '제주흔디독립영화제'로 기재된 점에 대해선 "단체로 알아보니 제주독립영화제작협회의 오기였다"며 "추후 지원 사업 확정에 따른 예산서를 단체에서 받는데 이때 영화진흥위원회 예산 항목과 중복되지 않는지 살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선화기자 sunny@ihalla.com

문화가 쫓겨

살거스 거리예술 프로젝트

제주 다원예술단체 살거스가 2019년 두 번째 거리예술 프로젝트를 벌인다. 이 프로젝트는 이달 20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제주시청에서 탐동광장까지 이동하며 진행될 예정이다. '유독한 세계에서 진화하는 사람들에 게'란 이름으로 방독마스크를 쓰고 바디수트를 입은 퍼포머들이 거리 한 모퉁이를 무대 삼아 관객들과 만난다. '누군가에게 세 번 미소짓기', '오늘 꼭 사랑한다 말하기' 등 공연의 힘을 담은 메시지를 나눈다.

재즈피아니스트 송준서 공연

서귀포관광극장은 이달 20일 오후 7시 재즈피아니스트 송준서를 초청해 '피아노의 숲'이란 제목으로 콘서트를 연다. 대학에서 클래식을 전공한 송준서 씨는 재즈에 빠져들면서 미국 버클리 음대로 진학했다.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 금난새의 '올 댓 재즈' 협연 등을 펼쳐왔고 피아노 솔로 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음반 수록 곡들을 미리 들려줄 예정이다. 064)732-1963.

배우세상 로맨틱 코미디극

'창작중심, 젊은 연극'을 표방한 극단 배우세상이 이달 24-26일 오후 7시30분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로맨틱 코미디극 '내가 사랑한다니까!' (작·연출 이화)를 공연한다. 15세 이상 관람 가능한 이 작품은 3류 소설가와 가수 지망생의 묘한 동거에서 시작된다.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사사건건 충돌하다 어느 순간 끌리게 되는 자연이 그려진다. 관람료는 3만원(예매시 1만5000원). 문의 010-5822-0164.

난타팀 탐나라타악 공연

제주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정란) 소속 난타동아리 탐나라타악(회장 김순자)이 이달 21일 오후 7시 탐동 해변공연장에서 '북소리 하나되어'를 주제로 제6회 정기공연을 연다. 이번 공연에서는 스틱과 북의 현란한 움직임으로 화려한 볼거리를 선보인다. '탐나무음', '해녀들의 이야기', '부채춤', '소고춤' 등을 준비했다. 11명으로 구성된 '탐나라타악'은 소외계층과 도민을 찾아가는 공연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판소리 인형극 '수궁가' 서땃 무대에

서귀포문화베틀리움전소가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이색 공연을 펼쳐놓는다. 첫날인 19일 오후 7시에는 '사운드 브레이킹(Sound Breaking)'이 준비됐다. 김정제(색소폰), 준김(기타), 이용석(베이스), 김선기(드럼)로 구성된 4인조 프로젝트 밴드 '더 JJ 모션'이 일상의 소리와 인간 내면의 감정이 만나는 사운드 콘서트를 빛낸다. 20-21일 오후 5시에는 판소리 인

형극 '수궁가'를 선보인다. 판소리 '수궁가'에 인형을 활용한 연극적 오브제를 결합한 작품으로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의 상상과 선입견, 그로 인해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유니버스 형식으로 담는다. 채코어로 번역 소개되는 등 해외의 여러 페스티벌에 참여한 공연으로 채코의 첼리스트 안 패치, 한국의 판소리 주자 노은실, 인형작가이자 연출가인 문수호씨가 함께 한다. 관람료 무료. 문의 064)738-5855. 전선화기자

기회보충보형 2억원 가입 업체

10월 연휴 제주직항 동남아시아 라오스 패키지

자연이 주는 순수 라오스 5일

역사·문화가 공존하는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 10월 2일(화) 단회 1인 999,000원

때론 지않은 자연, 나의 숲속 온천치병비행

전세기 상품으로 성인/소아 요금 동일합니다.

● 눈으로 마음으로 담아가는 자연이 주는 순수 라오스

"기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 가면 사람은 없다." 최근 여행자들의 천국으로 이름을 알린 동남아의 흥진주 라오스! 제주에서 직항으로 갈 수 있는 라오스는 '뉴욕타임즈'에서 선정한 가장 떠나고 싶은 지역으로 뽑힌 지역으로 여행과 휴양을 함께 즐길 수 있다.

협찬 : 티웨이항공

라오스 골프

3박 5일 (54홀)

1인 1,290,000원

그린피/캐디피/전동카트피/전선마사지 1회 포함
캐디팁 별도(18홀당 1인 10\$, 클럽중시, 싱글차지 별도)

포함사항 : 국제 항공료(TAX+유류할증료), 숙박료(2인1실), 식사/운송입장료, 가이드기사 비용, 여행자보험료

불포함사항 : 기타개인비용, 현지선택관광, 가이드기사 봉사료(3만원/1인), 부가세(VAT), 싱글차지

예약문의 **누리여행 758-5400** **파랑새여행사 744-1233** **늘푸른여행사 726-3344**